



##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 충남경제일지

### ['13.9.10] 충남도 기업인대상시상식 성황리에 열려

- 10일 도청 대회의실서...종합대상에 (주)길산파이프 영예 -
  - 제20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시상식이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인과 근로자, 기업인대상 수상자와 친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림
  - 이날 안희정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에 충남도 기업인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은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환경 속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충남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기업인상을 보여줬다”며 선정업체에 축하의 뜻을 전함
  - 안 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기업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선진기업들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함
  -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공연, 성공사례 발표와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5개 부문(종합·경영·기술·수출·창업)으로 나눠 시상하고 우수기업인상 5명, 가족친화우수기업인상 1명, 모범사원상 17명 등 총 38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시상함
  - 이번 기업인대상시상식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은 논산시 부적면에 소재한 스테인레스강관 생산업체인 (주)길산파이프(대표 정길영)가 이름을 올림
  - 또 ▲경영대상은 와이엠씨(주) ▲기술대상은 장암칼스(주) ▲수출대상은 (주)신호인더스트리 ▲창업대상은 (주)제이와이가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기업인상에는 ▲코리아휠(주) ▲(주)이립전자 ▲(주)세이크 ▲(주)이엔이텍 ▲(주)천일콘크리트 등 5개 기업이 선정됨
  - 이와 함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추진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인상은 우광산업(주)가 수상했고,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은 비엔켄이(주), (주)에스와이테크 등 2개 기업이 수상
  - 도 관계자는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도 경영안정자금 대출시 우대금리(3%)적용,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기회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며 “각종 행사시 도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으로 홍보하는 등 기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함

## ['13.9.24]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등 요청

- 안희정 지사 대전·충남지역 금융협의회 간담회 참석 -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4일 대전·충남지역 금융협의회 오찬간담회에 참석,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
  - 장광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과 오문석 도 경제협력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등 경제복지 실현을 위한 기관별 역할 ▲신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자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이 중 특히 신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도와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월 체결한 것으로, 자동차부품소재·조명부품소재·그린바이오·정보영상서비스·금속소재부품 등 5개 부문 중소기업에 ▲한국은행 총액한도자금 우선 지원 ▲협약 금융기관 우대금리 적용 ▲대출보증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 경제 규모가 급속 확대되고 있고, 경제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최근 4년간 4089억원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액을 확대하고, 대전·충남지역 배정액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요청
  - 한편 대전·충남지역 금융협의회는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와 8개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등 1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13.9.30] 노사민정 쟁치 고용·차별 금지 등 정책제안

- 30일 노동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서 도에 전달 -
- 충남도는 30일 도 경제통상실에서 노동사회책임 이행을 위한 도 노사민정위원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해 도 노사민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인 고용차별개선위원회 김민호 위원장과 노사발전재단 임승주 소장 등 10여명이 참석
  -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는 노사민정위원회가 도의 노동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ISO26000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노동 분야에 대한 사회책임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해 이날 공식 전달함
  - 정책제안서는 ISO26000 이행을 위한 ▲고용·차별금지 ▲노사관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보건과 안전 ▲인적자원개발 및 훈련 ▲지역사회 등 7개 분야로 구성
  - 이번 정책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차별개선 ▲노동조합 및

- 노동관련 NGO 역량강화 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노무확인제 도입 ▲청소년·청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구축 ▲고용·노동 전담 재단법인 설립 등
- 이와 함께 ▲심리치유·스트레스관리·금연절주 프로그램 보급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보급 ▲노동연수원 건립 ▲HRD협의체 구축 ▲고용포털 구축 및 우수사례 보급 ▲유관기관 충남 유치 등을 포함
  - 충남노사민정의 자문교수인 강봉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노사민이 정책을 개발해서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정책제안은 ISO26000 실천을 위해 충남고용포럼 등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제안에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밝힘
  - 한편, 충남노사민정은 노사민정 협력 강화 및 지역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 3월에 설치됐으며 ‘사회책임’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노사민이 정에 정책을 제안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음

### ['13.9.30] 道 역제안 ‘산단 내 공장입지 규제개선’ 결실

-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대통령에게 보고 -
- 충남도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공장입지 제한 규제가 대폭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힘
- 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에 충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즉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 산림청의 이번 법령개정 추진은 충남도가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 산업부, 안행부, 산림청 등에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설명 등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개정이 완료될 경우 도는 물론 전국적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부딪혀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던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은 공주시 검상농공단지에서 반도체 및 LCD용 부품을 생산하는 솔브레인 주식회사로, 도는 산업단지조성이 착수될 경우 신규투자 2조4000억원, 고용창출 4000명, 외자유치 1억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동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산림청에서는 산업단지가 준공돼야 보전산지가 해제되도록 지침으로 규제해 왔음
-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가 일부 편입되게 되면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므로 대기오염 및 폐수 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고 산업단지 준공 후에도 5년 동안은 용도변경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1~4종 배출시설) 이상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어 민간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려왔음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현장에 대기 중인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착수될 경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퍼져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말함

## ['13.10.1] '서민경제 버팀목' 충남신보 창립 기념식

- 1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소상공인 발전·서민경제 안정 다짐 -

-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1일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
- 창립 기념식에는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복기왕 아산시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고경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등 도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충남신보는 창립 기념식 행사로 새로운 사훈 선포식, 직원 축하공연, 직원 애장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
- 정철수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충남도의 유일한 금융지원 정책기관으로서 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안정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다”며 “충남신보는 앞으로도 공심에 입각한 업무자세를 유지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함
- 한편, 재단은 설립후 현재까지 모두 2조400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그중 약 50%인 1조 2000억원을 민선 5기 출범이후에 집중 지원 하고 있음

## ['13.10.1] '상생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 심사·선정

-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등 3개 시 선정 -

- 충남도는 9월 30일 '상생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등 3개 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1일 밝힘
- 이번 공모는 9개 시·군에서 5개 부문 20개 사업, 958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도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학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1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독창성,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여도,

추진의지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결과 선정된 지역의 사업내역을 보면, 공주시는 탄천일반산업단지내에 주거시설 156세대와 도서관, 체력단련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커뮤니티복합주거시설 건립 사업이며 서산시는 대산읍 대산리에 안산근린공원 조성과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 서산일반산업단지내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등 3개의 사업, 논산시는 논산 1, 2일반산업단지와 강경농공단지내 체육시설과 북카페, 매점, 관리사무소 등을 갖춘 주거시설 40세대 건립사업임
-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공주대학교 이경진 교수는 “공주시와 논산시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시설 마련 사업으로, 서산시는 대산지역 공원조성 및 문화·복지·체육시설 마련 등 산업단지별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 등을 반영한 것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령시의 지역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당진시의 합덕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등도 거점지역 정주여건 조성이 기대되는데도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함
- 도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180억원(매년 60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시·군의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시·군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13.10.4]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기업·민생현장 탐방' 안희정 지사, 전통시장 정책토론회 가져 -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도내 전통시장 상인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정책토론회'를 가짐
  - 지역경제 저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업·민생현장 탐방' 두 번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평가와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 등을 진행
  -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가 투입한 예산은 2727억원으로, 전통시장 1곳당 40억원, 점포 1개당 3560만원, 상인 1인당 2200만원에 달하며, 예산 대부분은 주차장과 아케이드, 공설마트 설치 등 대규모 물리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함
  -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전통시장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 시장이 처해 있는 여건과 사업효과 등을 냉철히 분석해 활성화 정책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 한다”며 “상인들은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제는 고비용 현대화 사업보다는 저비용 상인 역량강화 사업에 무게 중심을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
- 이어 “과거 상거래가 이뤄지던 장소이자 커뮤니티 장소였던 전통시장은 지역·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품의 차별화와 지역민과의 관계 강화, 지역 기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 안 지사는 또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주체인 상인들로, 상인 여러분들이 정책의 중심에 설 때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재개정 ▲SSM 사업조정 등을 추진 중이며, 올해 추진 사업 및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43억 ▲전통시장 경영혁신 10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4억원 ▲전진시장 벤치마킹 1000만원 ▲고객 유치 및 상품 홍보 지원 3000만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2000만원 ▲상인워크숍 1000만원 등 임
  - 도는 앞으로 사회적경제 차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홈페이지 개설 및 와이파이 설치 등 스마트 환경 구축, 로컬푸드, 상인대학, 상생산단 등 도 주요 정책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13.10.6] 충남도 수출지원정책 위기 때마다 빛났다

- 수출일선 기업 애로 해소...수출 목표 630억불 달성 원동력 -
- 충남도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들이 수출 제일선에서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며 엔저현상 지속과 국제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충남도는 현재 해외시장개척 사업(11개) 및 수출기반조성사업(8개)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들어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힘
- 우선, 지난 6월 박정현 정부부지사의 폴란드 방문 중 현지 한인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도내 A사는 폴란드 바이어간 약 1400만\$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1억달러 규모 추가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음
- 또 브라질에 보조사료를 수출해 오던 B사는 브라질 정부의 수입인증 기준 강화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문제에 부딪혀 수출 중단위기에 처하였으나, 도가 해당기업에 자유판매증명서를 대체하는 품질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중단 위기를 모면하게 함
- 이와 함께 형광용 조명제품 생산업체인 C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사업에



2007년부터 참여해 중남미로 수출영역을 크게 늘리고 있음

- C사는 도의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해 현지 시장조사는 물론 현지 수입규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콜롬비아, 페루에 성공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브라질, 칠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또 도와 지역 3개 대학(순천향대, 남서울대, 한남대)은 도내 43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19건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함
- 특히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지역 젊은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교육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통·번역은 물론 해외전시마케팅 사업을 함께 참여하여 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또 도 해외사무소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정책도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는 도내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는 중국 상해사무소와 미국 LA사무소를 현장중심 업무로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자체사업을 강화해 현재에 진출하는 도내 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상해사무소의 경우 지난 6월과 11월(예정) 2회에 걸쳐 도내 업체들과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LA사무소의 경우 2회(6월, 10월)에 걸쳐 LA, 뉴욕, 세크라멘토 및 캐나다 토론토 지역 무역사절단을 운영
- 이외에도 도 해외사무소는 도내 업체들이 현지에서 수출애로 발생 시 전담인력들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충남도의 수출지원정책은 위기 때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수입자가 현지에서 부도가 나가거나, 지급 불능상태로 수출대금을 폐일 처지에 처했던 도내 4개 업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보험보증료 사업을 통해 보험금을 보상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또 도가 FTA를 대비해 운영 중인 충남FTA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들도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홍성 소재 김 생산업체인 D사는 이탈리아로 수출을 시작했고, 아산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E사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성사시킴
- 또 제과 생산업체인 F사의 경우는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독일로 수출하게 되어 생산 인력이 2011년 35명에서 현재 47명으로 고용확대 및 공장증설 등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음
-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충남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EU, 한-미 FTA, 한-싱가포르, 한-ASEAN 등을 대비해 전략적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는 것임
- 도의 이러한 발 빠른 대응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말 기준 수출실적은 421억 달러로, 올해 도 목표액인 630억달러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 관계자는 “해외마케팅 사업은 항상 수입국의 무역제도, 정치적 상황, 환율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상존하기 마련”이라며 “도내 수출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간, 유관기관간 칸막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한편, 도는 ▲충남우수상품전시회(10.30~10.31)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11.28) ▲무역의 날 행사(12. 10)가 예정된 가운데 해외무역사절단, 해외전시박람회(단체·개별) 등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음
- 각 사업별 문의는 도 국제통상과(☎041-635-3360~3362)로 하면 됨

## ['13.10.10]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알리

- 10~12일 서울 코엑스서 65개 우수기업 참가 기술 전시회 -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3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10일 서울 코엑스(COEX) 1층 A3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 개최됨
- 충남도와 충북도, 대전시가 공동 주최하는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 공동발전을 목표로,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올해 12년째로 매년 3개 시·도가 번갈아 주관해 개최하고 있음
- 올해 행사는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한무호)의 주관으로 65개 업체가 참가해 전기·전자관과 기계·부품관, 바이오·식품관, 환경·에너지관 등 85개 부스를 운영
- 이날 개막식은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 부지사·부시장, 경제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참여기업 전시물 관람 등이 열려 행사의 서막을 올림
- 이번 박람회 참가 기업을 시·도별로 보면, 충남도는 바이오·식품 13개 업체, 전기·전자 4개 업체, 기계·부품 3개 업체, 환경·에너지 2개 업체 등 23개 업체(27개 부스) 참여
- 대전시는 바이오·식품 8개 업체, 전기·전자 1개 업체, 기계·부품 1개 업체, 환경·에너지 4개 업체 등 22개 업체(28개 부스)가 참가했으며, 충북도는 모두 20개 업체(30개 부스)로, 바이오·식품 14개 업체, 환경·에너지 2개 업체, 전기·전자 2개 업체, 기계·부품 2개 업체가 참여해 우수제품 등을 선보임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기술 제품전시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유통바이어 상담회, 경영·투자자문상담회, 기술거래 상담회, 기업특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 특히 11일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는 미국, 일본, 인도 등 7개국 11명의 초청바이어와 52개 참여기업간 실질적 상담이 이뤄지며, 국내 유통바이어 상담회는 백화점, 대형 마트 및 할인점, 홈쇼핑 등의 바이어 15명과 40개 참여기업간 상담을 진행
- 또 10일부터 2일간 충남테크노파크 컨택센터 전문위원의 경영자문상담을 30개 기업과 진행하였음

## 주요 민간 기관·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Korean Companies Five Year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 중국 '신형'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
  - 미국 성장률 일부 둔화 조짐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 퇴직자의 자영업 창업, 문제점과 성공창업을 위한 제언
  - 창조직업의 고용확대가 창조경제의 관건이다
  - 한일간 태풍의 피해 비교
  -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선진국 회복으로 한국경제 3.6% 성장
  - 수도권이 늪고 있다'
  - 일본 전자산업, TV,자동차, 부품 발판으로 재도약 노린다
  - 인터페이스의 대체는 멀티모달, 궁극의 목표는 '생각 읽기'
  - 3D 프린팅, 개인 생산 시대를 연다
  - 신뢰성 의심받는 중국 통계, 어떻게 봐야 할까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해외경제포커스(제 2013-42호)
  - BOK 경제연구 제 2013-22호
  - 유로지역 가계부문의 현황 및 소비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동남아 주요 신흥국 연료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